진안,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8800여개 일자리 창출 목표… 2022년까지 4년간 870억원 투자

진안군은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로 '더' 활기찬 지역경제, '더' 행복한 생태환경도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의 일자리 8,800여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군은 최근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진안군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에 공시했다.

최성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주요 사업부서 실과소장과 진안군여성일자리센터장 등 민관이 함께 일자리 창출추진단도 구성했다.

진안군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은 △지역참여형, △청정진안형, △융복합산업형, △성과지향형, △청년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15개 분야 핵심사업에 4년간 8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5%에서 2022년에는 7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고용률 45%(2017년 대비 11.8% 상향)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로컬 JOB센터 구축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심각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군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50%서 최대 90까지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는 무주군이 올해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계복원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수수료의 90%를, 6개월 이내면 70%를, 12개월 이내면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수수료 30%를 인하해 준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두 제도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크게 기여해줄 것"이라며 "군에서는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알리는 한편,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43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해당 농업인들에게 8백만 원의 혜택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사과 사이버팜 분양

15일 오전 10시부터

장수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장수사과 사이버팜 분양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과를 직접 키우고 수확할 수 있는 '장수사과 사이버팜' 체험이 올해에도 장수에서 진행된다.

장수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장수사과 사이버팜 분양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홍로와 하니, 후지 등 총 1,400주를 분양하며 가격은 1주당 홍로 18kg 보장 6만원, 하니 15kg보장 5만원, 후지 18~30kg보장 6~10만원이다.

1인당 품종별 2주까지 분양이 가능하며, 사과 수확을 비롯한 꽃 솎기, 열매솎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수확은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하순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며 분양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나무의 생육상황과 시기별 메일링, 체험일정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www.myapple.go.kr)이나 장수사과시험장(063-351-1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은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스키캠프를 실시한다.

"무주 빛내는 인재들로 키워나가자"

지역아동센터 대상 스키캠프 열어

무주군은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스키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키캠프는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스포츠·문화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심신을 단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주관하고 무주군체육회, e편한 스키 숍, 완산 골 명가, 반디랜드, 무주군관광협의회, 태권도원에서 후원해 큰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강춘 공동위원장은 "자원봉사와 후원을 바탕으로 뜻있는 캠프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후원자분들이 생겨 우리 아이들을 무주를 빛내는 인재들로 함께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캠프 첫 날인 9일 태권도원에 여장을 푼 아동들은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스키강습을 받았으며 반디랜드 천문대를 견학했다. 10일에는 반디랜드 사계절 썰매장에서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아이들은 "춥긴 했지만 친구들이랑 스키도 타고 너무 신나는 하루였다"라며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을 기억할 추억거리가 생겨 너무 좋다"라고 입을 모았다.

행사 인솔자로 참가했던 행복한 홈스쿨지역아동센터 백민제 센터장은 "다양한 교육을 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좋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더 따뜻한 진안 소식 기대하세요"

군 소식지 2019년 첫 편집회의

진안군 소식지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이하 진안고원)' 편집위원들이 새해 첫 편집회의를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허남근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진안고원 편집위원 12명은 9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2019년 2월호에 대한 편집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2019년 들어 갖는 첫 편집회의로 진안고원 2019년 2월호 통권 277호에 대한 지면배정은 물론 올 한해 편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편집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생하고 알찬 정보,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 농촌의 정겨운 풍경 등을 보다 현장감 있게 전하기 위해 힘써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진안고원은 일방적으로 행정정보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통신원으로 참여해 훈훈한 지역소식을 직접 전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진안은 물론 서울, 전주, 부산 등 전국의 1만1000여 명의 독자들은 진안의 최신 정보를 안방에서 손쉽게 접하고 있다.

A4 사이즈 책자형으로 매월 발행되는 진안고원은 무료로 배포된다. 매월 받아보려면 진안군 기획감사실 홍보팀(430-2840, ljhbjy77@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총력

진안군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지난해 피해예방시설에 72농가 약 8800만원과 피해 보상금 100농가 4500만원을 지급했다.

2017년에는 피해예방시설에 52농가 약 6000만원과 피해 보상금 128농가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해마다 피해보상금과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야산 인근 경작지에서는 농작물 재배 자체가 힘들다는 농가들의 여론에 따라 군은 수렵장 개장과 기피제 보급 등 여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진안군은 그간 수확기(8~11월) 한차례 운영하던 포획단 운영을 올 해에는 파종기((4~7월)에도 추가 편성해 연 2회 운영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군은 소극적이던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대처방안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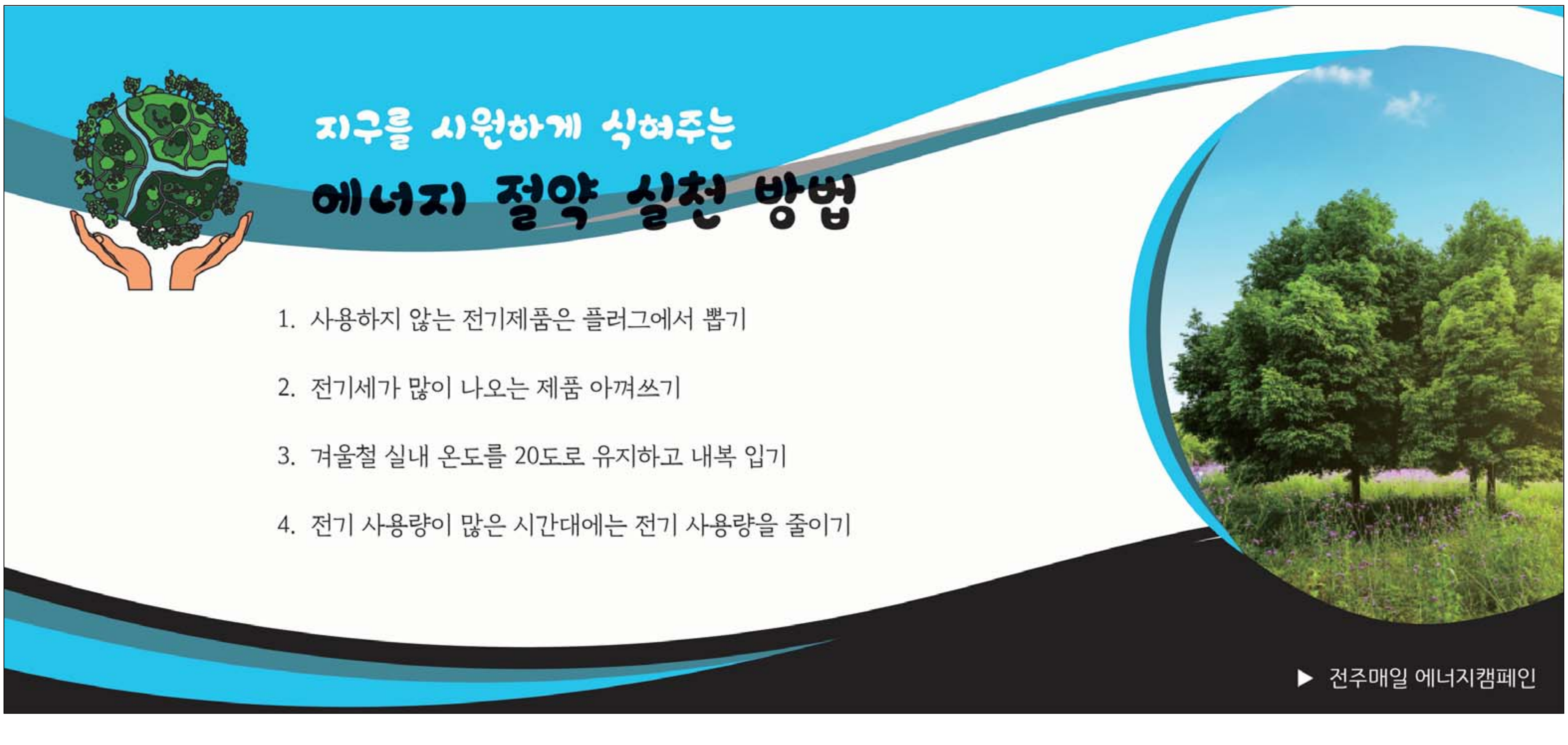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도 울타리 설치사업에 국한하였으나 지난해 12월 수요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그물망이나 능형, 방형 철조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키로 하고 주민 신청 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환경부의 수렵장 개장승인 시 관내 멧돼지는 1,800여 마리, 고라니는 2,6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수렵장 개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에 적극 나서 농민들이 힘들게 가꾼 농산물 등의 피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9년 산서면 마을별 좌담회

장수군 산서면(면장 조금현)은 2019년 찾아가는 좌담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일달 2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좌담회는 한국희 장수군의회 부의장과 함께 관내 34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군정시책 홍보, 현안사업 설명, 건의사항을 청취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올해 군정·면정에 필요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금현 면장은 "주민과 격식 없는 마을별 좌담회를 통해 올해 달라진 군정시책과 산서면 현안사업을 안내하고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하는 열린 행정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